

베트남, 기생충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아쉬워

채 종 일 · 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수

거 대한 대륙 중국의 서남쪽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베트남과 라오스의 기생충 감염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또 우리 나라가 오랫동안 축적한 기생충 관리 경험을 활용하여 두 나라의 기생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동안(1999년 5월 7일-16일) 현지 방문, 답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26

이번 여행은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임한중 회장님, 하성미 사무총장님, 남서중 국장님 등 한국인 4명과 베트남에서 어류 전문가인 Son, Quoc Tran 박사가 합류하여 모두 5명이 베트남에서 라오스까지 줄곧 동행하였다. 가는 곳마다 에피소드가 많았고 무척 재미있고도 유익한 여행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귀국 후 그만 호된 독감을 앓게 되어 1주일을 전전공공하였다. 베트남, 라오스에서 가져 온 반갑잖은 기념품이었다. 독감의 원인으로 말라리아, 회충 감염 등 가능한 여러 가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나중에 밝히기로 한다.

출발에서부터 에피소드가...

항공권과 비자 등을 모두 준비한 우리 일행은 드디어 1999년 5월 7일 김포공항에서 호지민시(구 사이공)로 향하는 대한항공기에 올랐다. 그런데 비행기에 타자마자 우리 일행에게 비상이 걸렸다. 타고 보니 탑승권만 있고 비행기표 원본이 없어진 것이다. 서로를 쳐다보며 누군가 가지고 있겠거니 하였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다.

부지런한(?) 여행사 직원이 굳이 자기가 check-in 대행을 해준다 하여 맡겼더니 우리에게 탑승권만 넘겨주고 비행기표 원본은 깜박 자기 주머니에 넣은 채 가버린 것이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승무원에게 겨우 전화를 빌려 이 사실을 건첩 본부와 여행사에 전달한 직후 비행기는 그만 이륙하고 말았다. 호지민시에서 일정을 마친 후 하노이행 비행기를 어떻게 타나 잔뜩 걱정을 안은 채...

호지민(Hochiminh) 시와
오늘의 베트남

호지민은 원래 베트남 전쟁 후 취임한 초대 통일 대통령의 이름이었다. 그의 이름

을 따서 구 사이공시(Saigon)를 호지민시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호지민시는 아직도 행정적인 경우에만 쓰고 있고, 시민들은 사이공이란 말을 더욱 즐겨 쓰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은 1960년대에 월남전을 치렀고, 우리 국군이에 참전한 일이 있어 우리에게 그리 생소한 나라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의 베트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시피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호지민시에 도착하여 정신없이 호텔에 여장을 풀 필자는 창 밖을 내다 보다 무척 놀랐다.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시가지가 발전되어 있었던 것이다.

길거리에는 하얀 “와오자이”(베트남의 전통 의상: 몸에 딱 붙는 멋진 여성 옷)를 입은 젊은 여성들, 호리호리한 몸매에 아담한 체격을 가진 남성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무수히 지나다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하여 물어보니 베트남 인구가 8,000만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대단한 잠재력을 지닌 나라임이 틀림없었다. 거리는 대체로 깨끗하였고, 프랑스

풍의 멋진 건물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베트남은 그 동안 모든 국력을 쏟아 부어 전후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였고,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다만, 기생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적으로 능동적인 대책을 하지 않아 이런 저런 자료에서 회충 60-90%, 편충 70-90%, 구충 40-60% 등 엄청나게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었다.

도착한 날 저녁에는 임한중 회장의 30년 전 베트남 생활 1년을 회상하기도 할 겸 “보 바이 땀”(7가지 쇠고기 요리)을 먹기로 했다. 베트남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는 양반도 잘 모르고 있는 민속 음식이었는데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다양한 쇠고기의 맛이란 실로 기가 막힌 것이었다.

갓가지 상추 같은 것으로 쌈을 싸서 먹기도 했는데 회충이나 편충의 충란이 묻어 있거나 없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다. 너무도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기만 했다.

칸토(Can Tho)에서의 이름난



▲ 하노이의 기생충병연구소(IMPE)를 방문한 후.
(왼쪽부터 하성미 총장, 연구소 부소장, 필자, 임한중 회장, Dr. Kim, Dr. De, Mr. ?, 남서중 국장, Son 박사)

다음 날 아침 7시에 느긋하게 일어나(시차 2시간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9시 경) 호 텔 (Garden Plaza) 부페로 식사를 한 후 서쪽의 메콩강 하구에 위치한 칸토(Can Tho)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칸토는 캄보디아와의 국경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메콩강 하구의 수많은 삼각주 지역 중 본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김해와 여러 모로 비슷한 도시였다.

가도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평야가 계속되고 쌀 농사가 연 4모작까지도 가능한 엄청난 곡창 지대이었다. 이 지역을 메콩강 지류가 군데군데 지나고 있어 봉고차로 3-4시간 이동하는 동안 2차레나 큰 배에 차를

옮겨 싣고 강을 건너지 않을 수 없었다.

칸토의 주변 환경과 물고기 생식 습관 등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보아 타이간흡충(*Opisthorchis viverrini*)의 유행이 농후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었으나 동행한 베트남의 Son 박사에게 물어보니 현재까지 전혀 조사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전후 회복과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니 국민의 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결과임이 명백하였다. 삼각주 지역 몇 군데에 차를 세우고 시장에 들러 물고기 파는 곳을 답사하였는데, 타이간흡충의 중간숙주가 될 만한 어종을 5-6종류 구입할 수 있었다.

저녁에 호텔 방에서 물고

기 근육을 슬라이드글라스 두 장 사이에 놓고 눌러 입체 해부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타이간흡충으로 생각되는 피낭유충을 비롯하여 7-8 종류의 흡충류 피낭유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타이간흡충증과 기타 장흡충류의 농후 유행지역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칸토에서 묵은 호텔은 최근 메콩강변에 새로 지은 것이었는데(Victoria Hotel),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깨끗하며 품위 있는 곳이어서 대체로 좋았으나 트윈 룸의 침대가 너무 좁아 매우 불편하였다. 외국인을 위한 호텔이라고는 하는데 침대 넓이는 베트남 사람(대부분 작고 아담한 체격이므로)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좁고 불편하였다.

메콩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관광 보트를 타고 2시간 가량 구경하면서 한국에서 가져간 “팩소주” 한 잔 씩을 마시는 기분이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강변에 무수히 지어진 수상 가옥들과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강물 오염의 걱정을 아니할 수 없었다.

대소변과 하수가 모두 저절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수질 오염의 위험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은 오염보다 생활의 영위 자체가 더욱 급박한 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보트 관광을 마치고 야채 시장과 어물전을 둘러보는 중에 무척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였다. 우리 남국장님을 가리키며 젊은 여점원 하나가 얼굴을 붉히며 미소를 짓고 뭐라고 말을 하자 주변에

있던 아가씨, 아주머니들이 일제히 남국장님을 쳐다보고 웃고 손짓을 하는 게 아닌가?

Son 박사와 가이드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 너무 호남이시라서 그런다는 것이다. 흐뭇해 하던 남국장님도 결국은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베트남의 여인네들은 호리호리하고 연약해 보이는 베트남 남자보다 남국장님처럼 건장하고, 호남형인 외국인(한국인)을 보자 호감을 가진 게 아닐까 하고 우리 일행은 해석을 내렸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요즘 베트남에는 한국의 텔레비전 연속극이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안방 깊숙이 방영되고 있어 한국인에 대한 호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쨌든 우리 일행은 1박 후 호지민시로 돌아왔고, 돌아와 보니 여행사를 통해 우리 비행기표 원본이 도착해 있었다. 전날 밤에 서울에서 호지민시로 날아 온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전달되었다고 한다. 오후에 하노이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었다.

수도 하노이(Hanoi)의 인성과 기생충연구소의 방문 성과

중국과 가까운 베트



▲ 호지민시의 전쟁기념관에서
(왼쪽부터 필자, 임한중 회장, 하성미 총장, 남서중 국장)

남 북부 하노이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대우 하노이 호텔(Daewoo Hanoi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한국의 대우 그룹이 지은 호텔로 수려한 경관의 호숫가에 위치한 고급 호텔이었다. 숙박비가 제법 비싸 그런지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아 보였다.

저녁은 호텔 도착 전에 홍강(Red river)변에 있는 민속집에서 먹었는데 라이브 카페 겸 음식점이었다. 음식은 그저 그랬지만 향아리에 든 술(죽엽청주 비슷한 것)을 길다란 대나무로 빨아들여 마시는 희한한 경험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 집에서 필자는 여러 차례 모기에 물리게 된다. 가렵기도 하였고, 혹시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노이는 현재 행정적인 수도로 정부 부처들이 모두 이 도시에 모여 있었고, 특히 우리 일행이 접견코자 한 보건성 관리와 말라리아-기생충-의 용곤충연구소(Institute of Malariology, Parasitology, and Entomology; IMPE)와 WHO 자문관실 등이 모두 이곳에 있었다.

그러나, 거리의 풍경은 호지민시에 비해 다소 경직되어 있고, 깨끗하지 않으며, 생활수준도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았다. 하얀 “와오자이”를 입은 아가씨들의 모습도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 도시 전체의 활기도 다소 둔

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즉, 베트남의 경제, 상업의 중심지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문물에 오랜 영향을 받은 남쪽의 호지민시이며, 북쪽의 하노이는 아직도 정치적인 도시로 머물고 있음을 느꼈다.

아침 8시에 WHO 자문관실을 방문하여 Dr. Allan Schapira를 만날 수 있었다. 베트남의 기생충병에 대한 간단한 현황과 관리 체제에 대해 듣고, 우리가 방문한 목적을 설명했더니 우리를 대환영하였고, IMPE의 몇몇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다.

곧이어 IMPE를 방문하여 Dr. Nhan, D.H.(부소장), Dr. De, N.V.(기생충과장), Dr. Kim, H.T.(부과장; 한국인이 아님) 등을 만나고 베트남의 기생충병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회충, 편충 등 토양매개성 선충류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었고, 간흡충, 폐흡충, 유구-무구조충, 낭미충 등이 곳곳에 유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베트남의 간흡충증(liver fluke disease)은 흥미롭게도 우리 나라에도 유행하는 간흡충(*Clonorchis sinensis*)과 태국, 라오스 등지에 유행하는 타이간흡충(*Opisthorchis viverrini*)의 두 가지가 동시에 유행하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다만, 간흡충은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 타이간흡충은 중부 지역 푸옌(Phu Yen)주 및 서남부의 메콩강 유역(자료는 미흡하지만)에 각각 유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간흡충류가 공존하는 면에서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한편, 폐흡충(*Paragonimus heterotremus*)은 서북부의 산악지방에 유행하고 있으며, 유구-무구조충과 낭미충증도 서북부의 고산족을 중심으로 2-6%의 감염률을 보인다고 했다.

우리의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 우의를 다짐으로써 이번 방문의 성과가 100%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우리 일행은 모두 흐뭇한 느낌을 가졌다.

실험실을 몇 군데 돌아본 후 IMPE를 나와 시내 중심가의 시장통에 있는 전통국수집으로 가 점심을 하였다. 베트남의 전통국수는 포(Pho)라고 하며, 특히 쌀로 만든 국수를 콤포(Com Pho)라 하는데, 우리 나라의 장터국수와 맛이 비슷하고 국물이 엄청 시원했다. 일행 모두가 두 그릇씩이나 맛있게 먹었다.

최근에 서울 곳곳에도 베트남 국수집(Pho Hoa)이 개점했다고 한다. 시간이 가면 그 시원한 국물맛을 한 번 맛보시길 권한다. 72

(다음 호에 계속)